



5월영령 넋 기리며... '5·18 민중항쟁 29주년 기념행사' 전야제가 1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소녀, 그리고 5월의 불꽃'을 주제로 열렸다. '넋이 5월 전사로 태어난다'는 뜻깊은 공연이 5월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이날 전야제에는 시민 5천여 명이 참석했다. /위직량기자 jwji@kwangju.co.kr

다시 온 그날, 잊지 않은 광주

5·18 29주년 전야제 추모 열기 절정...민주묘지 3만여명 참배

5월 단체 갈등에 '반쪽 행사' 오점도

'5·18 광주 민중항쟁' 29주년을 맞아 17일 전야제와 함께 추모 열기가 절정에 이르렀다. 비록 5월 단체간 갈등으로 '반쪽 행사'란 오점을 남겼으나, 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객들의 열기는 80년 당시 만큼이나 뜨거웠다. (관련기사 4·6·7면)

17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선 '5·18 민중항쟁 29주기를 기념하는 전야제'가 열렸다. '소녀, 그리고 5월의 불꽃'을 주제로 한 이날 행사에서는 5천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5월 영령들의 희생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전야제는 금남로 광장과 무대 등을 넘나들며 춤과 음악, 영상이 결합된 복합 문화공연으로 진행돼 추모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시민들은 '얼굴없는 전사'와 '아버지를 찾는 소녀' 등의 공연을 통해 5월 정신의 의미를 돌아봤다. 이어 식후 행사로 진행된 풍물과 판소리, 록 음악 등이 어우러진 '난장'에선 추모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앞서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 각종 기념 행사들은 5월 정신을 기리려는 시민들의 열한 참여 속에 축제의 장

으로 승화됐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5·18 기념행사의 명물로 자리잡은 '주먹밥 나누기' 행사 등에 참여하며 80년 당시 기억을 더듬었다.

시민들은 또 행사장 주변에 마련된 노동문제와 대학 등록금, 통일 등의 사회 현안을 주제로 진행된 전시·체험 행사에도 적극 참여했다.

5월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도 하루종일 추모 열기로 가득했다. 이날 5·18 묘지에는 3만명의 참배객들이 5월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또 정세균 대표, 손학규 전 대표, 송영길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등이 묘지를 찾았다.

다만 이날 5·18 묘지에선 29주기 추모제가 열리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그동안 추모제는 5·18 묘지에서 개최됐으나 최근 5월 단체간 갈등으로 인해 처음으로 옛 전남도청 별관

앞에서 거행됐다. 옛 도청별관 철거 여부를 놓고 불거진 5월 단체들의 갈등은 결국 '반쪽 행사'란 오점을 남기게 됐다.

18일 5·18 묘지에서 열리는 5·18 기념식에서도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장갑수 광주보훈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29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식 경과보고'를 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과보고는 5월 단체 회원들의 몫이었지만, 올해 행사에선 단체들간 내부 갈등으로 인해 장 청장이 하기로 결정됐다.

한편 경찰은 5·18 행사와는 별도로 옛 도청별관 철거, 화물연대의 총파업 돌입, 로켓전기 해고자 등 현안 문제를 둘러싼 '돌발 행동' 가능성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고흥 나로우주센터 21일 준공식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형 소형위성발사체(KSLV-1)가 발사되는 나로우주센터의 준공식이 오는 21일 열린다. <관련기사 3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나로우주센터 준공식이 이날 고흥 우주센터에서 진행된다. 지난 2000년 12월 착공한 나로우주센터는 부

지규모가 510만㎡로 총 사업비만 3천125억원의 예산이 소요됐으며 전세계에서 13번째로 건립됐다. 나로우주센터에는 한국형 소형 위성발사체(KSLV-1)를 발사하는 로켓 발사대, 발사 통제시설, 로켓 및 위성 조립시설, 추진기관 시험 시설, 우주과학관 등이 들어서 있

다. 오는 7월말에는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KSLV-1가 우주로 쏘아질 예정이며, 성공할 경우 전세계 자력 위성 발사국 모임인 '스페이스 클럽'에 10번째로 가입하게 된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지나친 지역사랑, 시·도 갈등으로

친환경 급식 전남산 제한에 광주시 시정 요구

지나친 지역사랑이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전남도가 학교 급식용 식재료를 전남산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펴자, 광주시가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광주시와 전남도가 갈등을 빚고 있다.

1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부터 학교 급식에 100% 전남산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로 하고 이를 시군 교육청과 일선 학교 급식 담당부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남지역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해왔던 광주지역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들이 하루아침에 판로가 끊기게 되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시와 시의회에 "광주지역 생산자 보호 대책을 세워달라"며 민원을 제기했으며, 시는 전남도에 정책 개선을 요구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다.

광주시 광산구에서 오이·고추 등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송광일 씨는 "중간 도매업체를 통해 3년 전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전남지역 학교에 공급해왔는데 최근 도매업체로부터 더 이상 광주산 농산물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광주·전남은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며 전남도의 정책에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전남지역 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한 도매업체 관계자도 "3~4년전부터 꾸준히 거래했는데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광주 농산물을 받지

말라고 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광주지역 일부 생산자는 인근 전남지역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새로 받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전남도의 관내 농산물 공급 정책에 따라 광주지역 생산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됐다"며 "광주·전남 상생 발전 차원에서 최근 전남도에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이정남 의원(광산 3)은

"광주시도 관내 생산자 보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광주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구입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남도 관계자는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올해 도비와 시군비 350억원이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구입에 지원되는 만큼 당연히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도의 정책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알림

제18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 바둑대회

- 일 시 : 2009년 5월 24일(일) 오전 10시
 - 장 소 : 한국기원 광주지원(광주시 주월동 국제호텔 건너편 3층)
 - 참가지역 : 광주·전남지역 근무 직장인
 - 팀 구성 : 단체전=1팀 3명(주장·부장·삼장) 한 직장에서 여러팀 참가 가능 개인전=각 팀에서 1명
 - 참가신청 : 5월 22일(금) 오후 5시까지 광주일보 문화홍보국 062-220-0541 한국기원 광주지원 062-675-3448
 - 참가비 : 1팀당 3만원(개인전 포함)
 - 시 상 : 단체 및 개인별 우승, 준우승, 3위, 입상자에게 상장 및 부상 수여
- 주최: 光日報社 후원: 광주시바둑협회

조이 여행사
234-3222

항공·지철

상해 광주 소주 4일 (KZ) 389,000

북경 3박4일 (OZ) 379,000

제주 2박3일 패키지 여행

88,000

6/23

179,000

카멜리아로 떠나는 큐슈 온천여행

(남) 4W 329,000 (일본항공도)

(남) 4W 419,000 (복금호텔)

대마도 3일 379,000

제주항공 초우가

유일항공 585,000

605,000

남기항공 제주소주 3일 555,000

오사카 나카 2박에서 제주까지 한번에 775,000